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기적같은 삶

인도의 최하 계층 불가촉천민(달리트, 不可觸賤民, 브란만(사제),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사(상인), 슈드라노)에 구별되는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카스트. 상위 계층과는 살갗이 닿는 것도,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한 우물을 먹는 것도, 수도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을의 야경을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족의 시체를 거두는 일을 하거나 길을 쓸고 상층 카스트들의 잡스러운 심부름을 하는 것이 임무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어먹고 천을 얻어 입을 권리만 보장 받는다.

상위 계층은 그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면서 "내 집안의 모든 약한 기운도 가져가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걸어 준다. 그들은 그 음식으로 늙은 부모와 아내를 먹이고 자식을 키운다. 그들은 불가촉천민, 마하라. "무지개가 뜨려면 비와 햇살이 모두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불가촉천민이 3000년간 짊어지고 온 '운명적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친 일생을 떠받쳐 준 신념은 아름답다.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어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관습과 그 밑바닥에 깔려 신음하는 불가촉천민의 일생은 햇살보다는 비가 훨씬 많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비와 햇살을 버려두지 않고 피워내고자 맞닿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도 버린 사람들>에 눈물겹게 전개되고 있다.

마하라의 한 사람인 다무(본래 이름은 다모다르 문자지) 다자 브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비교적 일찍 깨우치고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며 인간 존엄운동을 펼친 암베드카르의 추종자가 된다. 그는 막노동과 철도회사의 직원 등을 전전하며 무지개 뜨는 인생을 갈구한다.

그에게 내리는 비는 차갑고 냉혹했지만 가끔씩 당면하는 햇살은 행복했다. 그래서 다무는 비도 마다하지 않고 일터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다. 햇살이 내리되면 그 햇살의 촉박을 흠뻑 받으며 행복해 했다.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 지음
강수정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1000원

인도 불가촉천민 신분 극복하고 세계 경제 좌우하는 지도자가 된 '나렌드라 자다브' 가족의 일대기

다무의 삶에 가장 큰 햇살은 암베드카르의 정신이었다. 그 정신에 따라 마하라의 삶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깨우치고 그 정신에 따라 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고귀한 삶을 열어가기 위해 자기 생애 최선을 다 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몸부림친다. 그러나 환두교의 전통을 개혁시키는 길은 하늘과 땅을 맞바꾸는 일 만큼이나 어려웠다.

마침내 수많은 마하라들이 암베드카르의 주동하에 불교로 개종을 한다.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결정지어준 종교에서 인간의 평등과 일체 만물의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로 신념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신도 버린 사람들>은 다무와 그의 착한 아내 소누가 살아 온 궤적을 회고담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 부부의 삶은 근 현대 인도 사회에 그려진 마하라들의 슬픔과 고통 분노 그리고 꿈의 자화상이다. 암베드카르의 정신이 마하라들에게 어떻게 녹아들어 어떤 힘을 길러주었는지도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후반부에는 다무와 소누의 아들인 나렌드라 자다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도 버린 사람들>의 저자이며 세계적인 경제



학자인 나렌드라 자다브.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후 취득하고 인도 중앙은행 수석보좌관, 국제통화기금과 이디 오피아 아프리카니스타 중양은행 자문과를 역임한 그의 이야기는 마하라의 자식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출세했는가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부모의 개혁적인 삶이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과정을 담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인도로 떠난 스님의 여행 일기



나마스떼

지옥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나마스떼'는 인도의 인사말이다. "안녕하세요" 내지는 "귀하입니다"의 뜻. 인사말이란 것은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란 의미다. 지옥 스님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솔하게 인사했다. 지금 나는 안녕한지 지금 나는 제대로 귀의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으며 성지를 누볐다. 델리에서 시작한 스님의 여행은 다람살라, 스리나가르, 날란다, 구시나가르등을 거쳐 캄캄타에서 멈춘다. 그러나 그 멈춤에서 또 다른 여행은 시작됐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참되게 이어가려는 각성이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었다.

한 한국인 사문이 부처님의 땅 인도의 성지를 기웃거리며 느낀 숭고한 가치들이 정리된 일기. 이 책이 처음 나온 것은 17년 전이지만 지금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어 개정판을 냈다. 인도로 가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책이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는 증거일 것이다.

임연태 기자

체질별로 정리한 건강 지침서



생각대로 먹어야 건강하다

조성태 지음
생이 깊은 풀 펴냄 | 1만원

'형상 의학'의 권위자인 조성태 원장(아카데미한의원의 건강 지침서. 1만 3000가지로 사람의 체질을 나누는 형상의학의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타고난 신체조건에 맞춰 사는 지혜를 알려준다. 건강에 있어 왕도는 따로 없고 '생각 대로'가 답인 것이다. 자신의 생활 습관과 생각 체질 등을 '생각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자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유의점들과 개인의 체질에 대한 점검 등이 후반부에는 비단, 어지럼증, 불면증, 음주, 산후풍증 등이 실렸다.

함께 나온 <생각 대로 병이 온다>는 신체조건에 따른 질병의 가능성과 대응방법 등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됐다.

임연태 기자

엄마랑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부처님 이야기



정말 멋져. 누가?

박선영 글 | 강병호 그림
민족사 펴냄 | 9800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수준은 아닌' 이현이의 엄마 박선영씨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세계 4대 성인인 누구란 것은 잘 알지만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접할 기회는 다른 성인에 비해 더 적다.

그래서 박선영과 강병호 부부가 나섰다. 아내 박선영씨는 불교신문 신춘문예에서 동화에 당선된 후 <여성불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 강병호씨는 각종 만화 공모전에 당선 인선 경력도 화려하고 <올빼미 서당>등 책도 여러 권 냈다. 이 부부가 두 아들 이현



이와 다현이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해 주듯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불교동화에 몸과 마음을 던졌다. 포교의 의무나 작가로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은 어떤 걸 가르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부처

님을 통해 바르게 사는 길을 안내하고 싶다는 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이다.

이 부부의 용기 있는 출발에 민족사가 동반자로 팔을 걷었다. 그간 무거운(?) 책들만 펴내온 민족사가 처음으로 동화책을 낸 것이다.

<정말 멋져. 누가?>는 부처님의 생애를 아주 편안하고 쉬운 이야기로 꾸렸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태자시절, 출가, 고행, 성도, 첫 설법 등의 일대기가 이어지고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졌다. 엄마와 어린이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려준다. 중간중간 양념삼아 배겨워진 아빠의 만화도 재미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임연태 기자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정진	월호	랜덤하우스
3	고미워요 저버림상	마가	불광출판부
4	무문관서 꽃이 되다	최민희 편저	운주사
5	절을 가쳐서 읽는 법	청견	벗디의 마음
6	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툼툼 초드론	미디어 월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9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편찬실	운주사
10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전문영송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강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 5만원 (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영송 1-10권 : 105,000 (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8월 전국 법문은 여름수련회의 법용선사 심명 법문으로 대신합니다.
서울 법회는 9월 2일(토) 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영송/9월 9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9월 16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명상 그 꼭두박지의 지혜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주)미리미리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하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하여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라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共滅)의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성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형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 ◇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 ◇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 ◇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 ◇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 ◇ 인사말, 축하,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 - 맞춤형 개인지도 2개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원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배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슬기와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실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함을 담아서 보내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경운용, 건조용, 볶음용의 영양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100% 국산콩을 선택하여 만든 원주생식(콩분말) 원주생식 원 1kg 20,000원 원 1kg 25,000원 원 2kg 20,000원	원주스님이 보존하는 허밀리아아 식량 원 1kg 300,000원

무상사현진입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당점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대구) 우상사